

은행나무



입학기념호

- 발행인 : 최상호
- 발행처 : 환일고등학교
- 주 소 : 서울시 중구
환일길 47번지

<http://hwaniil.hs.kr>

2015년 3월 2일 월요일

2015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본교는 2015년 2월 23일부터 2월 25일(2박 3일)동안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2015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궁심을 갖고 고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본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신입생 301명이 참석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신입생들은 학교 연혁과 교과를 익히며 학교의 전통을 알아가고, 동아리 소개, 방과후학교 및 특기적성 수업 소개, 학생 생활 규정 설명 등 입학 전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받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스키캠프 시간을 마련하여, 스키 강습도 받고 자유 스키를 즐기며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과 돋도해지는 기회를 가졌다.



2015년도 입학식을 맞이하면서



이사장 · 의학박사 김은미

2015년도 입학식을 맞이하여 오늘 이곳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학부형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 선택된 자로 여러분들이 환일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봉학산 기슭에 자리 잡은 우리 환일의 새 식구가 되어 환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경천, 애국, 애인’의 말씀 아래 개교한 환일은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교육의 산실, 학문의 전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재된 재능을 갖고 닦아 빛나는 원석으로 일구어 냅니다. 강한 자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며 꺼져 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주님의 사랑을 타오르게 하고자 합니다. 감추어진 인성을 계발하여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고자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꽂 피울 때의 환희와 기쁨을 우리 모두 만끽하면서 새로운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이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환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소개하였습니다. ‘경천, 애국, 애인’의 교훈 아래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 일인자가 되자’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선을 다 합시다. ‘최후의 웃는 자가 되어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 는 말씀을 우리 모두 이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삼년동안 환일에서 공부하고 뛰어놀면서 진정한 환일인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꺼이 참여하고 즐거워 할 많은 학사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2015년을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참된 롤모델이신 그 분을 바라봅시다

교장 최상호

〈주홍글씨〉를 쓴 미국의 유명한 작가 나이나엘 호오돈의 작품 중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처럼 생긴 큰바위 밑 마을에 사는 소년 어니스트는 마을의 전설대로 언젠가는 이 고장에서 큰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동안 유명 사업가와 장군, 정치가 등이 차례로 나타나 사람들을 환호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모두 실망을 안기고 사라져 갈 뿐이었고, 세월이 흘러 결국 그 전설의 위인은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어니스트였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인물을 마음속에 그리며 열심히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위인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롤모델’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입생이 된 여러분들의 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있고 그것을 넘기 위한 엄청난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치고 방황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선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 롤모델로서 가장 완벽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명 정치가도, 돈 많은 사업가도,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간 모델은 될 수 있지만 삶의 최종 목적지로 이끄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혼들리고 힘들 때마다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 나간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 또한 여러분들의 정신적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려다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되지만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다 실패하면 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실행의 구체적 계획을 환일고등학교에서 다잡으십시오. 그리고 참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생활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큰바위 얼굴’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부지런하여 계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롬 12:11-13)』 ‘뜻’ 이란 무엇을 하려고 속으로 먹은 마음입니다. 뜻 없이 행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뜻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고 공동체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그만큼 뜻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뜻에 대한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뜻 없이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혀탄한 뜻을 두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뜻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삶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질을 많이 준비하였으니 평안이 거하라 한 것 같이 먹고 사는 일 외에 아무 뜻 없이 사는 사람들의 양상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며 뜻 없이 돈만 모으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뜻을 혀탄한 데 두는 삶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쾌락에 뜻

을 두며 세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그 성이 멸망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신앙은 있으나 하나님께 뜻을 두지 않고 쾌락을 일삼는 사람의 끝은 소금기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입니다. 그 분만이 자기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행 4:12).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요15:16). 뜻을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면 결국 그리스도를 등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신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고전10:31) 또한 인생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밭으로 나갑니다. 종일토록 부지런히 일했다면 돌아오는 밭걸음도 가벼울 것입니다. 온갖 악조건을 이겨내며 부지런히 씨를 뿐인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듭니다(시 126:6). 먼저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할 때 기회도 먼저 옵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내 가슴에 메달을 달자

내 기록집을 떼 가는데 기분이 얼마나 쪽쪽한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동 경기를 중도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선두권 참가자들이 출발지점으로 들어오자, 학성기에서 밀지 못할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선수 안전 문제로 수영은 1회전만 하겠습니다.” 나는 무척 혀탈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영을 1회전만 하는 줄 알았다면 경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경기는 포기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경기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수영에서 맨 마지막으로 들어온 참가자의 시간에 맞추어 사이클과 마라톤 경기를 마치고 나서 기록을 확인해보니, 수영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며 “포기한 내 잘못이다.”는 말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삼척 대회 1주일 뒤에 경기도 시민 육상대회가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나는 안양시 대표로 400m 트랙 경기에 출전하였습니다. 육상에서 400m는 비교적 장거리에 속합니다. 사람이 전력으로 달릴 수 있는 최대 거리가 300m, 그 지점을 지나면 심장이 터질 듯 힘들고 하늘이 노랗게 보일 지경이 됩니다. 나머지 100m는 정신력으로 버텨며 달리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속한 32개 시의 대표들이 8명씩 4개조로 나누어 달리고 기록 순으로 금·은·동메달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조1위를 해도 입상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나와 같은 조에서 달리게 되어 있는 선수들은 얼핏 보아도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였고, 키도 나보다 10센티는 커보였습니다. 운동지는 짐작이 심장이 심리적 압박감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준비! 차렷! 총성과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장의 트랙은 곡선이므로 선수들이 일직선상에서 출발

교목 박종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으름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며(잠19:15), 서까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세느니라(전10:18) 말씀합니다. 주를 섬김에 있어서도 계으르면 영혼을 잠들게하고 사망을 향하여 달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는 계을려서는 안됩니다(삿18:9). 예수님 생애 가운데 어디에서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큽니다(요3:16).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열심’입니다. 본문의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마음에 늘 끊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열심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계으름을 피우고서는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열정적으로 드리고, 공부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고, 봉사를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환일의 입학생들이여 먼저 3년 과정에 대한 뜻을 세우며, 열정을 가지고 과거의 삶에 정리를 잘해서 새 풋대를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며 주안에서 축복합니다.

진로상담부장 임부현

하지 않기 때문에 300m 지점 코너를 돌아봐야 누가 1위인지 알 수 있는데, 300m 코너를 돌았을 때 1위는 내가 아니고 수원시 대표였습니다. 나는 1위보다 반 발자국 정도 뒤쳐진 2위였습니다. 1위와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나는 접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갔습니다. 사실 조2위는 입장권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주일 전 삼척 대회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달려야 해.’ 이를 악물고 달렸지만, 결국 조2위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실망감에 웃옷으로 머리를 감싼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는 중 전광판을 쳐다보았더니 놀라운 경기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안양시 임부현 57초 04” 전체 2위였습니다. 우리 조에서 전체 1, 2위가 모두 나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1위는 아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얻어낸 값진 은메달이었습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넘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고비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고비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훌쩍 넘어가고 어떤 이는 좌절해서 주저앉고, 또 어떤 이는 멀리 돌아갑니다.

이제 막 새로운 길에 들어선 신입생 여러분 역시 예상하지 못한 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비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느냐 참고 견디며 넘어 가느냐는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 버리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값진 메달이 수여될 것입니다. 환일고 새내기들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각자의 경주를 멋있게 완주하여 자랑스러운 메달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여러분과 함께 결승점을 향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환일고 새내기 파이팅!



지난 4년 동안 각종 운동대회를 48회 참가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기록에 환호하고 좌절을 하던 순간들이 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중에서

도 2013년 늦가을에 삼척에서 열렸던 트라이애슬론 하프대회(수영 2km, 사이클 90km, 마라톤 21km)는 내 기억 속에 무척이나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대회 당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맘설이다 참가하였습니다. 출발지점에 도착하여 수영슈트를 입고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와 바람에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폭죽소리와 함께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수영은 해안에서 출발하여 두 군데의 반환점을 지나 해안 쪽으로 돌아오는 큰 삼각형 모양의 코스를 두 바퀴 돌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위낙 거세어서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 봐도 고개를 들어 보면 여전히 제자리이고 도리어 해안 쪽으로 밀려나기도 하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해안가로 나와서 살펴보았더니, 50명 정도의 대회 참가자들이 나처럼 명하니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 싶어 다시 바다로 들어가 수영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나 파도가 심했던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출동해 있던 해군 구명보트가 전복 위험이 있다고 모함으로 돌아가 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해안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참가자가 나타났고, 대회 진행을 하던 사회자가 마이크를 던지고 뛰어 들어가 구조를 해오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나는 한 바퀴는 어떻게 해 볼 수 있지만, 두 바퀴를 도는 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경기 시작 15분여만에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회 참가자는 기록 측정을 위해 발목에 기록칩을 달고 있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그 즉시 주최측에서 기록칩을 떼어갑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미래 인재 양성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주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나친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운영됩니다.

자율활동은 학교 학생회 활동 및 학급 활동이 중심이 되는 자치활동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전교육과 같은 적응활동 그리고 합창대회, 조형물 만들기 대회, 가을밤 열린음악회, 봉학마루제와 같은 행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은 일반동아리, 상설동아리, 자율동아리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일반동아리는 매달 2,4주 수요일

실천적인 창체활동을 위하여

6,7교시에 활동하고 모든 학생이 1인 1동아리에 편성됩니다. 상설동아리는 사격부, 합창반처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자율동아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관심분야 및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15개 정도의 자율동아리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학교 홈페이지 동아리활동 게시판을 통해 각 동아리별로 활동의 내용을 소개하고 가을음악회 및 봉학마루제 행사에서 활동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봉사활동은 1년 동안 10시간의 봉사활동(3년간 30시간 실시 예정)을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의 일반전형에서 대학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봉사활동의 내용이 아니라 시간수로만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만점 기준이 그리 높지 않아서 고교 3년 합산 20~30시간 정도만 채우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봉사활동은 만점입니다

창체계발부장 송원진

다. 세부적인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며, 고교 3년 합산 40~60시간이어야 만점이 되는 대학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 수조차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입학사정관 전형 등등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다르게 봉사활동을 평가할 때에 봉사활동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용과 지속성 등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진로활동은 적성검사,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및 대학탐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일고등학교 창체계발부는 내실 있고 실천적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하여 폭넓은 체험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입학을 축하하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

1학년 부장 오혜경

2015학년도 환일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늘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합니다.

환일의 모든 선생님들은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꿈과 끼를 맘껏 펼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어진 삶을 잘 가꾸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다보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의 친구들보다 느리게 가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발자국 더 내딛는 의지와 인내를 갖고 노력한다면 자신이 놀랄 정도의 성취와 기쁨의 결과를 꼭 얻게 될 것입니다.

추억은 오래 묵을수록 값진 포도주의 향기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교정의 사계절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특히 가을에 물드는 노오란 은행나무와 어우러지는 청명한 가을 하늘은 아름다운 그림 같은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꽃이 될 수 있는 고등학교 시절의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들을 기대하며, 입학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여러분

1학년 11반 담임 김기욱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때론 기대감에 부풀어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일고등학교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373명의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번 고등학교 입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도 중요했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이 세운 삶의 목표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쓸어 부어야 할 시간입니다.

노력이 없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미래를 맞이하려면 지금 현재를 가장 충실히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라는 성경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수석 입학생 1학년 박기원

2015년 2월 10일, 환일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신입생 등록을 하는 날. 새로운 학교를 가야 하기에 긴장과 설렘을 안고 학교에 갔습니다. 환일고의 오르막 길을 오르면서

‘앞으로 3년간 이 길을 오르겠구나’ 생각하며, 정문을 지나 올라가서 환일고에 도착해 바라본 전경은 웬지 모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내게 안겨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지망 원서를 내면서, 환일고가 가지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눈길이 갔었습니다. 또 홈베이스 및 미디어 스페이스라는 시설 역시 환일고에 대한 생활에 대한 기대를 더 높게 만들었고,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 환일고에 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환일고에 진학하게 되면 부딪힐 어려움으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이 대부분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학교에 다시 적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또 중학교 때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할 고등학교 수업에 대한 걱정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 채 적응하고 친해져야 할 것 같아 막막했던 내 예상과 달리 학교를 가보니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만나 친해졌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니 내심 안도감이 들었고, 다른 친구들 역시 내가 아는 친구들처럼 차차 친해지면 된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조금 덜어졌습니다. 또한 학교에 도착해서 등록절차 및 교과서 배부와 관련된 정보를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았고, 담임선생님을 만나 뵈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들 역시 모두 친절하시고 수업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 같아 기대되었습니다.



나의 꿈 나의 미래

사격부 특기생 1학년 백승우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꿈을 펼치기 위해 환일고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체육부장 선생님으로부터 ‘나의 꿈과 미래에 한 도전’으로 글을 써오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쓸까 고민도 많이 하고 솔직히 겁도 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진지한 꿈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솔직히 부모님과 코치선생님의 뜻에 따라 사격을 해 왔던 것이 아닌가하는 반성을 하며, 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환일중학교 2학년 때 체육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처음 사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격을 접하면서 코치선생님의 너는 ‘질할 수 있을 거야’라는 격려 한마디로 저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 한마디로 주눅 들지 않고 버티는 힘이 되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연습 경기에서 형편없는 사격 점수에 저는 혼날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컨디션이 안 좋은가봐. 힘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정말 고개를 떨어뜨리며 ‘잘해서 보답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번은 나주 사격장에서 바람이 몹시 불어 중등부 1등은 하였지만 메달을 못 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1등은 했잖아요’ 하며 애써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바람이 불어도 마음만은 흔들리면 안 된다! 하시며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격대회에서 메달 12개를 따며 좋은 성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 때는 사격에서 메달을 따야한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코치님께서는 메달에 상관없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한 마디가 그동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줬고, 훈련이 힘들 때마다 저를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격의 황제 전종오 같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올림픽 2관왕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격 이미지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실 세계사격선수권 대회나 아시안 게임, 올림픽 같은 때 TV에서 중계방송을 할 때만 사격에 대한 관심이 반짝합니다. 평소에는 비인기종목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말해도 저는 꾸준히 사격을 하려고 합니다. 인기가 없어도 관심이 떨어져도 저는 사격을 열심히 해서 꼭 우리 태극기와 애국가가 전세계에 올려 퍼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환일고 학생이 되었습니다. 오랜 전통과 사격명문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저 자신을 이겨내고, 꼭 국가대표가 되어 우리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격선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혼날에는 체육교육과를 통해 사격 선수들을 위해 코치하는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나의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1학년 담임 및 신입생 소개

학급	담임	신입생 명단
1	 오혜경(담당과목: 수학)	강민상, 곽선우, 김성민, 김준한, 김태엽, 김태윤, 김현석, 김호성, 노정래, 민지홍, 박기원 박성민, 박성찬, 박현열, 서동준, 송지호, 양창우, 양호진, 오유민, 윤성욱, 윤유빈, 이민석 이원권, 이주형, 장동준, 장민우, 장영우, 전지섭, 정효상, 조현준, 지건호, 진재원
2	 김효숙(담당과목: 사회)	강수한, 고경천, 고민성, 고은석, 구도연, 권승주, 김덕원, 김승빈, 김연우, 김지혁, 김진명 김천우, 김현우, 김현종, 류세윤, 명원빈, 박건희, 박범수, 박정회, 박준수, 박지훈, 송민우 송지형, 유호진, 이우영, 이준호, 이형우, 이형주, 이효준, 정철우, 조재민, 최우혁, 최종호
3	 전수진(담당과목: 국어)	고정현, 구상준, 김병현, 김부림, 김세진, 류주홍, 민동휘, 박동건, 박효진, 서기현, 손승빈 신승찬, 안재현, 오제유, 유태혁, 이세형, 이재현, 이제선, 이종수, 이호승, 임채웅, 임철오 장민혁, 정기원, 정한힘, 조성민, 주창덕, 최민승, 최서혁, 최원호, 최준혁, 최호준
4	 최나미(담당과목: 윤리)	강송구, 고판석, 김규엽, 김민석, 김상진, 김성결, 김태욱, 노금채, 박근수, 박윤성, 박주성 박지혁, 박태린, 박희준, 백배승, 서동권, 서호성, 오세정, 오윤석, 윤홍우, 이다빛, 이상준 이승규, 이예찬, 정재엽, 정준범, 정희윤, 조명현, 조민수, 차신형, 최윤호, 허태욱
5	 윤종은(담당과목: 영어)	구찬영, 김경민, 김기성, 김동규, 김동우, 김동휘, 김영욱, 김재관, 김준태, 김찬연, 김채운 노상원, 박경운, 박정우, 박종훈, 박진용, 방석현, 서진혁, 송차민, 원준혁, 윤태희, 윤현준 이동원, 이승준, 이찬솔, 이현무, 이형철, 장승범, 정옥교, 정재현, 추준식, 홍정민
6	 이은형(담당과목: 과학)	강동휘, 강민석, 강태욱, 계원빈, 권구윤, 김민서, 김세진, 김영서, 김영준, 김준수, 김준연 김진호, 남기인, 민정환, 박병민, 박성진, 박현민, 선주송, 손종휘, 신주경, 옥준우, 이승재 이준호, 장규범, 전영훈, 정모세, 정상훈, 정석훈, 정재홍, 최태현, 최혁, 한시온, 황민형
7	 박경하(담당과목: 수학)	강동균, 김민석, 김민우, 김상혁, 김성흠, 김윤수, 김태훈, 김호림, 문훈교, 박병선, 박승원 박우주, 박준영, 박지민, 박현준, 백승우, 염우찬, 윤도현, 윤지호, 이계원, 이민호, 이승준 이승환, 이유빈, 이창주, 임도형, 조성현, 최봉석, 최성현, 하현재, 한상진, 함윤태
8	 김학권(담당과목: 미술)	기배균, 김도환, 김선웅, 김지운, 김진석, 김진현, 김호준, 노원준, 박래훈, 박찬, 서용운 손진혁, 송우빈, 신승빈, 심재혁, 안영태, 우상우, 이건혁, 이선찬, 이용석, 이한주, 임지섭 임지훈, 전재호, 정세연, 조경민, 조성민, 채형우, 최대원, 최동현, 최승환, 한현
9	 김경신(담당과목: 국어)	권형준, 김민성, 김영균, 김장현, 김재형, 김정환, 김주현, 김준희, 문진현, 박민우, 박민재 박장혁, 박태현, 오세훈, 위형호, 유성욱, 윤재성, 윤태웅, 이상우, 이영준, 이용규, 이재용 이종민, 이한진, 임채진, 정영민, 조민석, 조완희, 최원준, 하현수, 현재석, 현지웅, 황준혁
10	 최진성(담당과목: 체육)	김성진, 김승태, 김제현, 김찬영, 김태선, 노현우, 명세훈, 박근형, 박인철, 박정빈, 배재영 배현재, 백진호, 서우현, 설성학, 송기웅, 송락호, 신예녹, 안선우, 양동륜, 이승민, 이환희 임종석, 임형욱, 전우영, 전태성, 정윤상, 조관영, 조재영, 최윤진, 추찬영, 표리원
11	 김기욱(담당과목: 수학)	권병석, 권주완, 김동혁, 김동훈, 김승현, 김우진, 김재영, 김정우, 김제현, 김준혁, 김호종 문준호, 박기덕, 박성환, 박준혁, 심종현, 안지후, 엄용찬, 연성모, 오민혁, 우민국, 유세호 유재혁, 이건우, 이세정, 이의정, 이창규, 임성민, 조동찬, 지일환, 최민혁, 최철용, 홍준섭 황정석

부서별 업무 소개


교무부 (부장 : 변호경)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연간 학사 일정 계획 및 관리
-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계획
- 학적 · 출결 · 장학 · 시상 업무
-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 일반고 진로역량강화사업
- 학교 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업성취도


연구부 · 인문사회부(부장 : 이정철)

- 대입 지도 업무
- 학교 교육 계획 및 평가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 명사 특강, 학생 특강, 학생탐구논문 발표대회
- 학력평가 관리 및 성적 분석
- 교과교실제 수업 운영
- 인성 및 통일 교육, 각종 경시대회
- 도서교육 · 논술교육 · 토론교육 진행
- 도서관 및 전자 도서관 활성화


생활지도부(부장 : 강홍구)

- 기본생활 습관 지도 및 적응 훈련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 수학여행, 수련활동 계획
- 학교 폭력 예방 교육
-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잔반 줄이기


선교상담부(부장 : 박종관)

- 신앙의 내면화
- 종교행사 및 선교 활동 강화
- 경기예배, 학급기도회 운영
- 학생 생활 상담활동


진학부(부장 : 신정섭)

- 대입진학업무
- 세종 반, 소그룹 지도 반 운영


특성화교육부(부장 : 최원호)

- 신나고 활기찬 특기적성교육활동
- 직업반, 대안교실
-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운영


창체계발부(부장 : 송원진)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 적성, 소질에 맞는 동아리활동
- 동아리, 봉사, 체험 자료집 발간
- 다양한 봉사, 체험활동


정보미디어부(부장 : 김기현)

- 교내 정보화기기 관리
- 학교 홈페이지, 방송국 관리
- 정보공시, 개인 정보 보호 연수


자연과학부(부장 : 오혜경)

- 수학, 과학 교육의 효율적 운영
- 영재학급(과학 · 수학 · 발명) 운영


체육교육부(부장 : 허동명)

- 학교체육(체육대회, PAPS) 업무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비만학생 체력관리
- 특기적성 교육(체육)
- 졸업 여행, 스키 캠프


진로상담부(부장 : 임부현)

- 진로행사, 대학탐방, 전공설명회, 직업체험
- 나의 꿈 발표대회, 환일 중 · 고 멘토링
- 진로 박람회,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및 특기적성 수업 소개

방과후학교 및 특기적성 수업은 전학년이 단과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은 국영수 및 탐구 과목 중심으로 수준별(심화수준, 보통수준, 기초수준)로 수강 신청에 따라 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소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선별하여 수준에 맞는 수업을 맞춤으로 들을 수 있다.

특기적성 수업은 미술실기반, 헬스반, 농구반, 입시체육반, 야구반, 기타반, 요리반, 제과제빵반, 바리스타반, 원어민 영어회화, TEPS반, 축구반, 일본어반, 중국어반 등 체력을 단련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다.



〈축구반〉



〈농구반〉



〈요리반〉



〈기타반〉



〈미술반〉



〈심층토론반〉

동아리 소개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동 관심사와 취미에 따라 다채로운 체험 중심의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사고력, 탐구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에 본교에서는 올해를 "동아리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상설동아리 53개, 자율동아리 16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경건한 찬양과 복음을 전파하는 경배와 찬양단, 학교 신문인 은행나무를 편집하는 교



[사진1] 환일중창단 – 축제 때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중창단

[사진2] 전자로봇반 – 로봇 제작 중

[사진3] 애드폭스(광고영상동아리) – 광고제작을 위한 기획팀 브레인스토밍 중

[사진4] KIMC(한국모의국제회의) – 포르투갈 대사 방문 행사

[사진5] Paper English – 신문을 활용한 실생활 영어 공부 중

[사진6] 경배와 찬양단 – 추수감사예배에서 찬양하는 모습

[사진7] 사격부 – 전국 사격대회에서 실력을 겨루는 모습

[사진8] 나라사랑 – 삼의사 묵념과 감사기도를 드리는 모습

경제동아리 'HWANIL ECONOMICS'

2학년 이대얼

Q1. HWANIL ECONOMICS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희 동아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환일고등학교의 경제동아리입니다. 경제에 관심이 있거나, 경제 관련 스펙을 쌓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로, 모여서 경제수업을 듣기도하고, 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으로 견학을 다니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의미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Q2. HWANIL ECONOMICS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작년 저희 동아리에서 활동한 것은 NIE신문스크랩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매주금요일 6~9시까지 모여서 스크랩 활동을 하고 우수상을 받았으며, TESAT(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소그룹 활동으로 경제수업을 받고, 직접 동아리단위로 시험에 참가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활동할 것으로는 작년과 비슷하게 신문스크랩과 TESAT수업과 시험에 참가할 것이고, 여러 곳으로 견학도 갈 것이고 이외에도 더 많은 활동을 할 것 입니다.

Q3. 동아리 활동으로 얻게 된 것이 있다면?

NIE신문스크랩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하여 생활기록부에 등재되고, 상금도 받았습니다. 또한 각자 경제를 공부한 만큼 TESAT시험에 참가하여 등급을 따고 생활기록부에 등재됐습니다. 이처럼 동아리 활동만으로도 생활기록부가 풍부해졌습니다. 또한 경제공부도 하고 TESAT으로 등급도 따고, 신문스크랩을 하면서 선배들에게 대학진학이나 학교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캠페인에도 참가하여 봉사시간도 얻는 등 동아리에 들어와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Q4.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제에 관심 있거나 관련된 스펙을 쌓고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고 싶은 열정적인 학생들에게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길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경제에 관심이 없어도 NIE신문스크랩은 경제와 관련되지 않아도 세상을 보는 안목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학교나 대학 진학과 관련되어서 선배들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학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열정과 참여할 의지만 있다면 저희 동아리에 참여해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도서부 '길우회'

2학년 육현수

Q1. 길우회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

도서부는 책에 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책에 관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동아리입니다. 책을 읽고 그 책을 주제로 한 토론을 하는 독서토론을 빈번이 진행하고 책을 만들거나 책 홍보를 위한 ucc를 제작하는 독서캠프를 열어 책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함양해 갑니다. 그 외에 도서전시회, 책 서평, 동영상 만들기, 저자와의 대화 행사, 독서콘서트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매주 수요일 동아리시간에 환일고등학교 도서관인 '독보도서관'에 모여 함께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보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고 청소함으로써 친구들에게 좀 더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합니다.

Q2. 동아리 활동으로 얻게 된 것이 있다면?

책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 덕분에 지식과 상식, 그리고 소양이 증진됐습니다. 그리고 타 동아리와는 차별화되는 활동, 가령 신입생 OT나 신입생 환영회와 같은 활동덕분에 좋은 선배님들은 많이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환일고등학교에 인연이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환영한다. 앞으로 환일고등학생으로 3년을 살아야 하는데, 도서부에 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앞에서 말했지만 도서부는 정말로 선후배 사이가 좋다. 도서부에 오면 착한 형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이번 기수는 더욱이 그렇다. 도서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게.



MRA/IC

2학년 임영택

Q1. MRA/IC란 무엇인가요?

MRA/IC는 "Moral Re-Armanent / Initiatives of Change"의 약칭으로 한국 정식 명칭은 "세계도덕재무장"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목실장이었던 프랭크 북먼(Frank Buchman) 박사에 의해 1938년 6월 4일, 영국 런던에서 창시되었습니다. MRA/IC는 절대 정직, 절대 순결, 절대 무사, 절대 사랑 등의 4절대 도덕 표준(The Four Absolutes)을 바탕으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MRA/IC 교내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MRA/IC의 주된 활동은 교내외 봉사활동으로, 대부분의 동아리 시간에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또한 정규 동아리 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에 교외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봉사활동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진로 관련 활동도 병행하는데요. 작년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견학하기도 하고, 직업 센터를 방문하여 챌린지, 요리, 게임 만들기 등의 여러 가지 진로 체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Q3. MRA/IC 활동으로 얻는 이점에는 어느 것이 있나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동아리 활동의 대부분이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참여한 봉사활동은 생활기록부에 기입 가능한 봉사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MRA/IC는 국제 규모의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대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MRA/IC에 가입한 타 학교의 학생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Q4. MRA/IC 활동이 학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MRA/IC 활동은 정규 동아리 시간에만 진행되고 있고, 간혹 정규 동아리 시간 외에 교외 MRA/IC 행사나 봉사활동이 있더라도 교외활동은 학생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자유롭게 불참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스키캠프



2014년 12월 29일(월)부터 2014년 12월 31일(수)까지 본교 1, 2학년 학생들 200여명이 강원도 하이원 스키장으로 2박 3일간의 스키캠프를 다녀왔다. 흰 눈 위에서 스키의 속도감을 즐기며 겨울을 만끽하는 한편, 스키캠프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학업에 치여 돌보지 못했던 친구들 간의 우정을 돋우고자 하는 시간이 되었다.

스키, 그 가쁜함에 대하여

2학년 송인준

솔직히 이번 스키 캠프 전엔 나는 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평생 한번도 스키나 보드를 타본 적이 없었던 나는 이박삼일에 이십만원이라는 저렴한 참가비용을 보고 신청을 했다. 스키 캠프 가기 며칠 전에는 기말고사를 끝낸 상태여서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이고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었다. 혹시나 이런 스키타기 등이 나의 놀고 싶었던 한을 풀 수 있을까 싶어서 신청한 것이다.

방학식 날 학교가 일찍 끝나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곧 출발했다. 애들이 많이 피곤했는지 서울을 떠나기도 전에 나 빼고 다 잠이 든 것 같았다. 전부터 별 기대를 하지 않았던 나는 이제 설렘 반 떨림 반인 마음이었다. 가는 길에 한식을 점심으로 먹고 오후 3시쯤에 드디어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에 도착했다. 안전 훈련 밀 짠비 공급 등으로 시간이 가버린 후 저녁을 먹고서야 야간에 스키를 처음 탈 수 있었다. 물론 나는 생전 처음으로 타는 입장이어서 기본 학습을 해야 했다. 야간에 기초를 배우고 밤에 라면을 사먹고 티비도 보다 잠들었다.

아침에도 슬프게 기초를 배워야 했다. 기본 연습장은 작고 시시했기 때문에 별로 신나지 않았다. 다행히 점심 전에 기초 강습이 끝나고 오후에 자율 시간을 얻어서 처음으로 제대로 스키를 타게 되었다.

경사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코스를 타긴 했지만 처음에는 속도 조절이 힘들어서 7분 코스를 2분 정도에 끝냈다. 온갖 놀이기구를 타 보았지만 스키풀스피드의 스릴에 벼금가지도 못한 것 같다. 다행히 반 친구 우진이의 도움으로 속도 줄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리프트를 탔는데 태어나서 부터 겁이 많던 나는 첨엔 약간 아찔했다. 혹시나 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같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스키타고 내려오면 바로 리프트를 다시 탔다. 내가 가본 스키장은 이곳이 처음이지만 여기가 확실히 스케일이 컸다. 한번 내려오는데 아쉬웠던 적이 없을 정도로 오래 탄 느낌이 났다.

아쉽게도 저녁엔 난 못타고 잤지만 다시 아침에 기회를 얻어 마지막 한번 스키를 탔다. 이젠 준비가 되었다 싶어서 4.3km 코스를 타기 위해 리프트를 정말 오랫동안 탔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올라간 내 입꼬리는 내려갈 줄 몰랐다.

정말 스키 타는 기분은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즐겁다. 학교, 교회, 학원에서 받은 근심거리와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스키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가쁜한 기분은 절대 잊을 수 없다. 정말 스키를 탈 때 행복이란 것을 느낀 것 같다.

이박삼일이 다 지나고 집에 갈 때가 되었을 때 떠나기 너무 싫었다. 일주일 정도는 더 타다 가고 싶었지만 이젠 다시 서울행이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생겼다. 대학 입학 후 꼭 여자 친구와 같이 이곳에서 스키를 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학교생활 할 마음을 잡은 것 같다.

PS. 이 캠프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

추억 하나

3학년 김영석

2014년 12월 29일, 한 해 동안 나라에 여러 사고가 많아 기다리던 수학여행조차 가지 못한 올해, 우리는 2박 3일 동안 중고등학생연합으로 임원수련회 겸 스키캠프를 떠났다. 2학기가 다 끝나 새 학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은 휴식을 주는 날이자 같은 반 학생들에게는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날이었다.

목표지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 리조트, 한국에서 가장 좋은 스키장이라고 손꼽히는 시설 좋은 곳으로 가게된 것이다. 출발하는 버스에서부터 아이들의 설렘은 그대로 전달이 되어왔다. 특히 내가 속한 2학년 10반만 해도 그랬다. 수학여행을 못가서 쌓지 못하였던 추억을 만들고 오자는 취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기다리던 출발을 하게 된 우리 반도, 출발부터 도착 까지 설레는 마음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들과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떠들어댔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 준비된 밥도 먹고 우리는 스키장에 도착하였다.

도착한 후 우리는 잠시 소강당에 모였다가 짧은 설명을 듣고 바로 숙소로 이동하였다. 기대하고 있던 숙소는 정말 만족스러웠다. 2박 3일 동안 편안히 쉬고 놀 수 있는 방이었다. 식사 또한 정말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 후 조금 휴식을 취한 뒤 드디어 스키를 타려 갔다. 이번 스키캠프에 총 탈 수 있는 스키 타임의 횟수는 5번을 구성되었다. 그 중에 첫째 날 야간 스키와 둘째 날 아침스키는 강습이고 나머지 3번은 자유 시간이었다. 처음 타던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스키 강습을 받기 무척이나 싫어하였다. 물론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몰래 도망갈까?” 하는 말도 들려왔다. 자유 시간을 조금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첫 강습 후 숙소에 돌아온 우리는 매우 피곤했으나 또 아이들과 놀기 시작하니 그런 생각도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감사하게도 꽤 자유롭던 밤이었기에 담소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으며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둘째날이 되고 아침 일찍 기상하여 밥을 먹은 뒤 바로 스키 탈 준비를 하였다. 아침 강습 후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보내고 모두가 기다리던 자유스키 시간이 되었다. 서로 스キー 시합도 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도 한 장 찍고 속도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시간은 야간 스키까지 이어졌다. 그 후 숙소에 돌아온 우리는 정말로 피곤했으나 또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 때 문인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재밌게 놀았다.

셋째날 아침, 점심을 먹고 출발이 예정된 날이다. 그 전 아침스키가 아직 남아있었으나 전날 밤 많은 학생들이 피곤했는지 타지 못한 아이들이 태반이었다. 숙소에 남아 게으름도 피우고 남은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으며 휴식을 취하다가 아쉽게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고 말았다.

수학여행을 못가서 그랬던 것일까? 작년보다 더 재미있고 추억도 많이 쌓게 된 캠프였다. 곧 이 시간도 지나고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담임선생님들을 만나 새 학년이 되어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학기를 기다리고 있다. 곧 있으면 신입생들도 학교에서 보게 될 것이고, 조금 더 성숙해진 2학년을 보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어느새 정말로 입시준비생이 된 3학년도 보게 될 것이다. 그 전에,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과 더 추억을 쌓게 되어 정말 행복하고 보람찬 스키캠프였다.

제62회 졸업식 거행

2015년 2월 5일(금)에 본교 대강당에서 제62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졸업식에는 설립자 김예환 박사님, 이사장 김은미 박사님, 마포구 정호준 국회의원, 중구 노웅래 국회의원, 서울시 시의원 최강선님, 서울시 의원 김창수님, 해군 준장 정인양님(동문 27회 졸업), 학부모회장님, 학교장 최상호님 등 내외빈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되었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 졸업생과 관련된 각종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제작되어 방영되었고, 졸업장 수여식 때에는 학사 가운과 학사모를 쓴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담임교사가 직접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3개 부문(교육-김사진 카톨릭대 교수, 의료-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예술-김희석 백석대 교수)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동문들에게 '자랑스러운 환일인상'을 수여하였다.



校 歌

조 치 훈 작 사
박 태 준 작 곡

고 운 이 꿈 상 피 어 나 는 는 봉 만 학 산 마 너 르
온 바 누 라 뵈 를 는 굽 한 어 보 물 는 도 높 바 은 집 다 있 간 다
미 술 뿐 기 신 는 하 나이 힘 나 님 요 은 뜻 사 름 랑 반 은 들 광 어
사 누 량 리 으 위 로 해 어 두 끝 치 는 햇 불 꾼 을 이 든 된 다
환 일 환 일 우 리 - 환 일 거 륙 한 이 름
기 리 두 고 우 리 마 음 거 물 이 된 다

Woonwha International Foundation

제21회 삼성휴먼테크 논문대상 수상

〈2학년 황의호, 진우빈〉

삼성전자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제21회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본교 2학년 황의호(주저자), 진우빈(공동저자) 학생이 환경/식품/위생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 뛰어난 과학연구실력을 전국에 과시했다.

2월 12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시상식이 열린 이번 삼성휴먼테크 논문대상에는 국내외 151개 고교·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논문 1982편이 제출, 전국의 684명의 심사위원이 두 달간 심사해 우수작을 선정했다. 삼성휴먼테크 논문대상은 국내외 대학·대학원생과 고교생 가운데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의 초석이 될 과학도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4년에 제정됐다.



2015학년도 주요행사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일 : 시업식 · 입학식 9일 : 정 · 부회장 선거 신입생 환영 예배 11일 : 학력평가(고1,2,3) 16일 : 정 · 부회장 임명식 18일 : 작은 음악회 20일 : 환경미화심사 24일 : 수업공개 및 진로지도날	6일 : 부활절 촛불 예배 9일 : 학력평가(고3) 15일 : 명사특강, 대학탐방 28일~5/1일 : 중간고사 (전학년)	~1일 : 중간고사(전 학년) 5일 : 어린이 날 13일 : 국가기상센터 체험학습 15일 : 스승의 날 20일 : 명사특강, 전공설명회 22일 : 체육대회 29일 : 합창대회	3~5일 : 수련활동(고1) 4일 : 모의평가(고3) 5일 : 동행훈련(고2,3) 8일 : 건강검사(고1) 10일 : 과학경시대회(고3) 17일 : 명사특강 26일 : 대입설명회(학부모)	3~8일 : 기말고사 9일 : 학력평가(고3) 10일 : 영단어 향상대회 성경퀴즈대회 14일 : 한자경시대회 15일 : 영어등기대회 논술경시대회 17일 : 방학식	17일 : 2학기 개학식 19일 : 명사특강 21일 : 학생탐구논문 제출 24일 : 정 · 부회장 임명식 27일 : 수업공개 및 진로지도 28일 : 환경미화심사